

「소쇄원48영」 재연 요소 분석과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임준성*

<차 례>

1. 머리말
2. 「소쇄원48영」 재연 의미와 진행 과정
3. 「소쇄원48영」의 16영 재연요소 분석
4. 소쇄원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전남의 대표적 누정인 소쇄원을 노래한 “「소쇄원48영」 재연 행사”의 재연요소를 분석하고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다. “「소쇄원48영」 재연 행사”는 16세기 사대부들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엿보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에서 기획제작한 것이다. 「소쇄원 48영」 중에서 행위요소로서 재연에 적합한 16영을 선별하였으며, 梁山甫, 金允悌, 金麟厚 등 세 사람의 등장인물과 첫 만남의 장면까지 포함하여 17장면을 모두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재연하였다. 각 장면에서는 제영의 작품내용을 따라 소쇄원의 경물과 경치를 대화의 중심소재로 삼았으며, 각 장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소쇄원48영」 재연 행사”는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전통문화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통인문학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으

* 조선대학교

며 “「소쇄원48영」 재연 행사”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학제간의 연구와 함께 문화콘텐츠적인 접근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남은 소쇄원 뿐만 아니라 면앙정, 식영정, 환벽당 등 한국 누정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누정의 사람, 조경, 문학, 예술 등등 안팎의 다양한 요소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면 문화관광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의 인식제고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제 간의 연구를 계속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핵심어 : 瀟灑園48詠, 金麟厚, 梁山甫, 再演, 문화콘텐츠, 문화관광

1. 머리말

瀟灑園¹⁾은 조선 전기 때의 문인 瀟灑處士 梁山甫(1503~1557)가 지은 別墅園林이다. 그는 己卯名賢의 한 분인 靜菴 趙光祖(1482~1519)의 문인으로 士禍로 인해 정치적 파행과 勳舊派의 專橫으로 인해 스승의 도학정치에 좌절되자, 한양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인 蒼巖村에 내려왔다. 그는 바깥세상과 담을 쌓은 채 오로지 소쇄원을 경영하면서 歸去來의 전통을 세운 節義的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산수 좋은 곳에서 정자를 짓고 노닐고자 하는 뜻을 품었다.²⁾ 당나라 때 李德裕가 낙양 30리 밖에 세운 平泉莊의 고사를 참고하여 후손들에게 소쇄원을 잘 경영해줄 것을 유언으로 부탁하였으며, 그 결과 소쇄원의 원림의 원형이 오늘날까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될 수 있었다.

1) 소쇄원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소쇄원길 17에 위치하고 있으며, 事蹟 304호이다.

2008년에 전라남도 명승 40호로 지정받아 현재 담양군청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다.

2) 「實記」, 『소쇄원사실』 권2, 한국가사문학관 소장본. ‘處士公幼時出遊 偶見野鴨沿流而下公逐流窮源 而上至一處巖壑 幽絕瀑流噴灑 公游泳徘徊樂其奇勝 頗有卜築之志’

소쇄원은 극소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93년 유홍준³⁾이 한국의 대표적인 庭園이자 園林으로 소개하면서 전국적인 답사명소가 되어 하루에 수백 명이 다녀가는 등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다. 소쇄원 인근 주위에는 瑞隱 全新民(?~?)의 獨守亭, 忠壯公 金德齡(1567~1596)의 醉歌亭, 沙村 金允悌(1501~1572)의 環碧堂, 石川 林億齡(1496~1568)의 息影亭, 忍齋 金成遠(1525~1597)의 棲霞堂, 明谷 吳希道(1583~1623)의 鳴玉軒 등 담양을 대표하는 樓亭이 자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詩歌文學이 활발히 발달하여 이 일대를 星山歌壇⁴⁾이라 불렀으며, 16세기 시가문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2012년 7월 24일. 연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이곳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광주문화재단⁵⁾에서 시행하는 “「소쇄원48명」 재연 행사”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역일간지와 방송기관은 물론이고 중앙언론과 방송3사까지 합세하여 열띤 취재경쟁을 벌이는 진풍경을 연출했다.⁶⁾ 이는 광주문화재단에서 무등산의 인문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 <무등산 사계>를 기획한 것으로, 그중 여름행사로는 “「성산계류탁열도」 재연 행사”⁷⁾와 “「소쇄원48명」 재연 행사”

3)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창작과비평사, 1993.

4) 丁益燮, 『改稿 湖南歌壇』, 민문고, 1989, 107쪽 참조.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102쪽 참조.

5) 2011년 1월 광주광역시가 출원하여 설립. <http://www.gjcf.or.kr/>

6) “소쇄원48명 재연 행사”는 2012년 7월 24일, 28일, 8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 당일 저녁 방송3사의 주요뉴스에 등장하였으며, 그중 YTN 뉴스가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207240243322303 광주시민단체에서 제작한 ‘광주랑’의 공식홈페이지 <http://www.saygi.com/2208>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jcf.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0&page=12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7) “성산계류탁열도 재연 행사”는 “소쇄원48명 재연 행사”와 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논문에서 자세하게 논하였다. 임준성, 「<성산계류탁열도> 재연 분석과 문화콘텐츠로써 가능성」, 『남도민속문화』 25, 남도민속학회, 2012.

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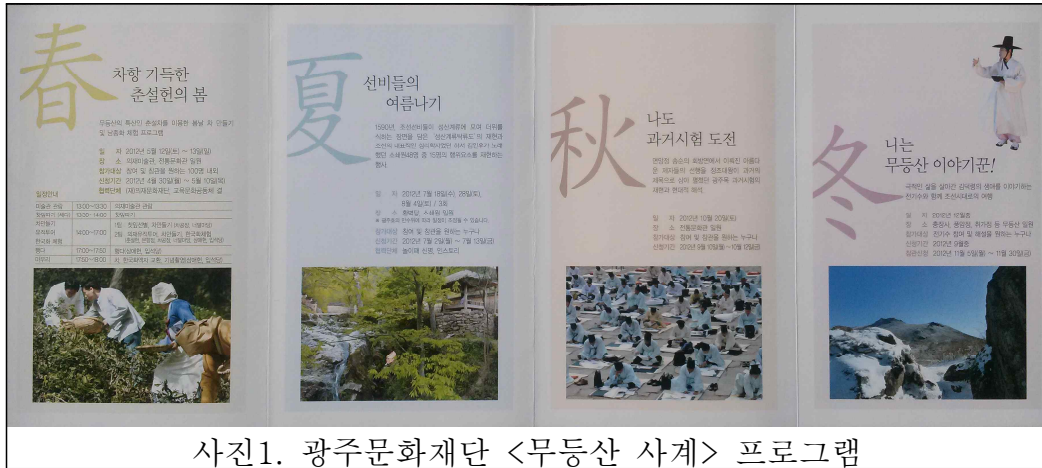


사진1. 광주문화재단 <무등산 사계> 프로그램

“「소쇄원48명」 재연 행사”는 한 여름의 더위를 소쇄원 계곡에서 시원하게 보내려던 관광객들에게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예상외로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방학을 맞이하여 자녀와 함께 소쇄원을 찾은 부모님들은 교육적으로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16세기 때 선비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소쇄원48명」⁸⁾이라는 시에서 착안하여 오늘날 새롭게 재구성하여 재연했다는 것은 전통문화콘텐츠의 발굴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통인문학의 역할⁹⁾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소쇄원48명」 재연 행사”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학제간의 연구와 함께 문화콘텐츠적인 접근방식으로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河西 金麟厚(1510~1560)의 「소쇄원48명」 중 행위요소로써 재연 가능한 16명을 선별하여 당시 소쇄원에서 교유했던 인물들의 재연과정을 통해 분석하여 문화콘텐츠로써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연의 구성상 이해의 편의를 위해 사진자료를 제시하도록 할 것이

8) 金麟厚, 『河西全集』 권5, 한국문집총간 33, 88쪽.

9) 정요일, 「전통 인문학으로서의 한문학의 문화 이론적 활용」, 『한문학의 논리』, 일조각, 2009, 307~328쪽 참조.

다. 또한 한문고전 자료와 문화관광의 개념을 서로 통섭하여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소쇄원48영」 재연 의미와 진행 과정

현재까지 소쇄원에 대한 연구는 문학과 조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면서 학문적인 성과를 상당부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¹⁰⁾ 주로 전공 영역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왔음에 비해 최근에는 각 분야를 서로 연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경운¹¹⁾은 문화적 관점에서 담론을 제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만큼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문학연구가 문화연구로까지 파급되고 있는 융합통섭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소쇄원48영」의 재연 가능성이다. 문학작품을 각색하여 연극,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모습을 바꿔 무대에 올려지

10)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덕진 「『소쇄원사실』 발간과 그 의의」,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2009.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48詠考」, 『우리말글』 25, 2002. 김영모 「시짓기와 원림 조영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1, 한국전통조경학회, 2003. 김용수·김재호, 「소쇄원에서 보는 命名과 詩吟의 계획론적 의미」, 『경북논문집』 49, 경북대학교, 1990. 소현수 「借景을 통해 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정광휘 「소쇄원 초기 시단의 한시 일고」,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학회, 2011. 정동오, 「소쇄원의 조경식물」, 『호남문화연구』 9,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77. 조태성,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성 구조와 공간의 미학」, 『호남문화연구』 44,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2009.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 활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미정, 『소쇄원을 통해 본 전통 원림의 차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김덕진, 『소쇄원사람들1』, 다할미디어, 2007. 김덕진, 『소쇄원사람들2』, 선인, 2011. 양재영 편, 『소쇄원시선』, 광명문화사, 1995. 이동호, 『소쇄원의 숨은 그림 찾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천득엽, 『한국의 명원, 소쇄원』, 발언, 1999.

11) 정경운, 「심미적 경험공간으로서의 소쇄원」, 『호남문화연구』,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2007.

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별도의 무대를 제작해야 하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상업자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소쇄원48영」은 별도의 무대가 아닌 실제의 현장에서 재연을 벌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곧 현장성은 사실성을 뜻하기에 양산보가 살았던 시대를 재연해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다. 더구나 「소쇄원48영」은 김인후가 양산보의 소쇄원 조영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기에 재연의 밑바탕으로 삼기에는 안성마춤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소쇄원48영」 재연 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세기가 산업혁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혁명의 시대이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여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한 편의 부가가치가 더 높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산업을 ‘굴뚝연기없는 공장’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문화가 衣食住 생활양식의 총체라 하듯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문화가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 이는 인문학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 자신의 것을 가까이서 돌보지 못했다. 전통학문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서양학문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전통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 전통은 박제화된 골동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溫故知新’이 뜻하는 것처럼 과거의 가치를 오늘에 맞춰 새롭게 발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 ‘거기’가 아닌 지금 ‘여기’로 시선을 맞춰야 한다. 이처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는 때에 “「소쇄원48영」 재연 행사”는 전통문화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시도이다. 남도의 자연과 학문이 어우러져 湖南의 溪山風流¹²⁾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단순한 조경공간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생활상을 주입시키면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콘텐츠로써 다

12) 임형택, 「16세기 광주나주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 계산풍류의 발전」,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2002, 144쪽.

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소쇄원48영」 재연 행사”¹³⁾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소쇄원48영」은 소쇄원의 공간은 물론이고 정물과 경물 그리고 행위요소가 모두 망라하여 시로 표현한 작품으로 오언절구의 형식에 48개의 제목을 붙여 연작제영시 형태로 지었다. 소쇄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노래하면서 천지조화의 오묘함을 감상하고 있다. 이는 자연과 함께 관조하는 계산풍류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태평성세를 바라면서 사돈관계인 소쇄처사 양산보의 안녕을 축원하는 등 소쇄원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쇄원48영」 가운데 행위요소로써 재연 가능한 16영을 선별하여 1755년에 제작한 『소쇄원사실』에 실려 있는 <소쇄원도>의 동선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과거 소쇄원의 동선은 현재와 동일하여 각 제영마다 순차적으로 재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

13) “소쇄원48영 재연 행사”는 이보다 앞서 2011년 3월 15일에 시연을 가졌다. 광주 문화재단 문화관광팀장 전고필씨의 기획과 지도 아래 진행하였으며, 필자는 자문을 맡아 같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재연 구성을 마쳐 2012년에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기서 동선은 「소쇄원48영」의 제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 등장인물이 서로 만나고 소쇄원을 둘러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모두 17장면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만남 → ②池臺納涼(11영) → ③小塘魚泳(6영) → ④榻巖靜坐(19영) → ⑤脩階散步(23영) → ⑥陽壇冬午(47영) → ⑦斷橋雙松(26영) → ⑧垣竅透流(14영) → ⑨梅臺邀月(12영) → ⑩倚睡槐石(24영) → ⑪廣石臥月(13영) → ⑫床巖對棋(22영) → ⑬湫流傳盃(21영) → ⑭玉湫橫琴(25영) → ⑮槽潭放浴(20영) → ⑯枕溪文房(2영) → ⑰柳汀迎客(39영)

재연의 시간적 배경은 소쇄원 조영이 마무리 되고 「소쇄원48영」을 창작한 시기로 짐작되는 1545년에서 1550년경¹⁴⁾ 여름으로 설정하였다. 등장인물로는 소쇄원 주인 양산보, 환벽당 주인 김윤제, 그리고 김인후 등을 내세웠다. 나이에 맞게 분장을 하고, 사대부의 격식을 갖춘 의복을 갖춰 입도록 했다. 재연 대본¹⁵⁾은 준비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 적절히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기본 줄거리만 갖추고 제영의 뜻을 최대한 살리면서 상황에 따른 대사를 자유롭게 하도록 지시하였다.

현장에는 음향장비를 구비하여 재연 배우들에게 무선 핀마이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소쇄원 공간 전체에서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연 행사를 위해 관광객들을 통제하지

14) 현재 「소쇄원48영」의 정확한 창작 시기는 알 수 없다. 소쇄원의 건립시기가 松江鄭澈(1536~1593)이 지은 「瀟灑園題草亭」의 첫구에 보면 자신이 태어난 해에 초정이라는 정자를 세웠다고 한 것으로 보아 1536년부터 조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인후가 지인 「瀟灑亭卽事」에서 戊戌이라 표기하고 있어 1538년임을 알 수 있다. 이후 김인후는 1545년 인종의 승하를 계기로 낙향하게 되면서 소쇄원에 자주 왕래했을 것이며, 「소쇄원48영」은 1545년과 1550년 사이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김덕진은 1548년에 창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추정일 뿐 정확한 시기는 아니다. 김덕진, 『소쇄원사람들1』, 다할미디어, 2009, 188쪽.

15) “소쇄원48영 재연 행사” 대본은 MBC 구성작가인 정재경씨가 맡았다.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관광객들로부터 자칫 불필요한 오해와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재연 배우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구경하게 현장감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밖에 시종 두 명과 거문고 연주자 한 명, 그리고 재연에 필요한 소품인 말, 부채, 술, 안주, 가야금, 문방사우 등을 갖추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재연을 진행하였다.

3. 「소쇄원48영」의 16영 재연요소 분석

「소쇄원48영」은 관습시적¹⁶⁾ 연작제영시으로써 오랜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산보가 소쇄원을 조영했던 시점을 1536년으로 잡고 늦어도 1550년경에 완성했을 것이라고 보면 약 15여 년의 시간을 두고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소쇄원48영」은 林億齡(1496~1568)의 「息影亭20詠」¹⁷⁾, 宋純(1492~1582)의 「俛仰亭30詠」¹⁸⁾ 등 이 시기 星山 일대의 연작제영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쇄원48영」 재연 행사”를 위해 우선 행위요소로 가능한 16영을 선별하고, 처음 만남의 장면을 추가하여 모두 17장면으로 구성하였다. 16영의 공통점은 각 제영의 네 글자에서 ‘장소’와 ‘행위’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양식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재연 제영인 ‘池臺納涼’의 경우 앞의 ‘池臺’ 연못가의 언덕을 뜻하고, 뒤의 ‘納涼’은 여름철 더위를 피하여 서늘

16) 김신중, 「소상팔경가의 관습시적 성격」, 『고시가연구』 5, 1998, 146쪽.

17) 「식영정20영」은 임억령이 먼저 짓고 그의 제자들인 金成遠(1525~1597), 高敬命(1533~1592), 鄭澈(1536~1593)이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18) 「면양정30영」은 金麟厚, 林億齡, 高敬命, 朴淳(1519~1589) 등 네 사람이 지었으며, 송순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식영정20영」과는 달리 차운하지 않고 같은 제영의 형식으로 하여 각자 독자적으로 지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梁大樸(1544~1592)과 李洪南(1515~?)의 작품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이 시기 연작제영시가 하나의 시적경향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함을 맛본다는 뜻이다. 곧 앞에는 명사, 뒤에는 동사 또는 그 반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은 중국의 「瀟湘八景」¹⁹⁾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리의 경우 고려시대에 전래되어 많은 문인들이 주요한 소재로 삼았으며, 이는 하나의 관습적 연작제영시의 양식으로 굳어진 경향을 보였다 할 수 있다. 「소쇄원48영」 또한 이와 같은 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각 장면의 주요 대화 내용을 통해 재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쇄원에서 세 사람 만나다

① 소쇄원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제월당에서 김윤제가 먼저 와서 양산보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

② 시종이 와서 김인후가 곧 도착하겠다고 전하자, 김윤제가 손님맞이 하는 장소인 待鳳臺에서 기다리라고 제의하자 양산보는 흔쾌히 응한다.

③ 시종이 이끄는 말을 타고 온 김인후가 말에서 내려서 대봉대를 향해 걷는다.

④ 이윽고 세 사람이 만나자 서로 읊을 하며 반절을 한다.

⑤ 양산보가 더운 여름날에 먼길에서 오느라 고생 많다고 위로를 전한다.

⑥ 김인후가 오는 동안 여기저기 구경하느라고 피곤한 줄 몰랐다고 답한다.

⑦ 다시 제월당으로 가서 차를 들면서 그간의 안부와 학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윤제가 제월당이라 이름지은 까닭을 묻는데, 北宋 때 黃庭堅(1045~1105)이 周敦頤(1017~1073)의 인품을 묘사하면서 쓴 것이라 답한다.

⑧ 김윤제가 “소쇄원의 비경을 알려줄 수 없겠는가” 하고 양산보에게 청한다.

⑨ 양산보는 작심했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위해 소쇄원의 비경을 다 보여주겠다고 한다.

⑩ 세 사람은 아까 만났던 장소로 되돌아간다.

19) 전경원, 『瀟湘八景,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 출판부, 2007, 57쪽.



2) 연못가에서 더위를 식히다 : 池帶納涼

南州炎熱苦
獨此占涼秋
風動臺邊竹
池分石上流

남쪽 고을은 무더위에 고생하는데
홀로 이곳만은 가을처럼 서늘하다네
바람은 누대 주변 대숲에 일렁이고
연못에 물넘쳐 돌 위로 흐르네²⁰⁾

- ① 待鳳臺 앞 연못가에서 빙둘러 서 있다.
- ② 동시에 시중 한 명이 두루마리로 된 제영 제목을 펼쳐보인다. 이는 16영 재연에 모두 공통된 사항이며, 관객들에게 장면을 소개하는 효과가 있다.
- ③ 양산보가 여기가 바로 소쇄원에서 시원한 자리라고 소개한다.
- ④ 김운제가 바람도 그리 불지 않는데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다고 대답한다.
- ⑤ 김인후는 아래 연못 언덕 대숲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양산보에게 묻는다.
- ⑥ 양산보는 연못 아래 계곡과 대숲에 부는 바람이 여기서 만난 까닭에 가장 시원하다고 한다.
- ⑦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중에 김인후가 “연못가 언덕에 더위를 씻을 만하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곳을 ‘지대납량’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겠소?”하고 묻는다.
- ⑧ 양산보는 적절한 이름이라 하면서 시를 청한다.

20) 제11영 「池臺納涼」



3) 작은 못에 물고기들 노닐다 : 小塘魚泳

方塘未一畝
聊足貯清漪
魚戲主人影
無心垂釣絲

네모진 연못 한 이랑도 채 안되는데
부족하나마 맑은 물 모으기에는 괜찮다네
물고기는 주인의 그림자에 이리저리 노니는데
낚싯대 드리울 마음 일지 않는다네²¹⁾

① 양산보가 연못가에 온 김에 위로 좀더 올라가면 작은 연못에 물고기들이 재롱을 떤다고 말한다.

② 김윤제가 반색하며 어서 구경가자고 재촉한다.

③ 양산보가 여름날에는 물고기들도 더워서 그런지 움직임이 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물고기들은 대숲의 정기를 받아서 그런지 생기가 넘친다고 자랑한다.

④ 김윤제가 물고기들이 양산보만 쫓아가는 것같다고 하여 호탕하게 웃는다.

⑤ 양산보가 물고기들이 이렇게 자신을 따르니 어찌 낚시할 마음이 생겼느냐고 웃는다.

⑥ 김인후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니는 물고기들이야말로 소쇄원의 주인같다고 말한다.

⑦ 양산보가 두 개의 연못을 조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우리네 원림양식은 上下方池이라 하여 크고 작은 두 연못이 서로 물길을 이어받는 모습이 학문 또한 이와 같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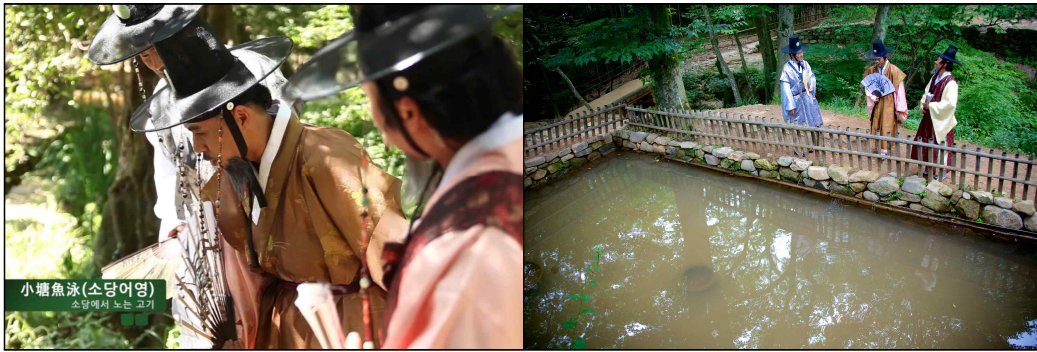
⑧ 양산보가 선비들의 마음도 물고기처럼 걸림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사회로 인해 돌아가신 스승님 생각에 가슴이 멍멍

21) 제6영 「小塘魚泳」

해진다고 한다.

⑨ 김윤제가 김인후를 보면서 여기 보면서 떠오르는 시상이 없는가 하고 묻는다.

⑩ 김인후는 중얼거리듯이 “작은 연못에서 노는 물고기라, 그렇다면 小塘魚泳이라고 지으면 어떻겠소?” 하고 묻는다.



4) 평상바위에 조용히 앉아 명상하다 : 榻巖靜坐

懸崖虛坐久
淨掃有溪風
不怕穿當膝
偏宜觀物翁

낭떠러지 바위에 하릴없이 오래 앉으니
깨끗하게 씻어주는 계곡의 바람 맞는다네
맞닿은 무릎이 뚫린다 해도 두렵지 않아
관물하는 늙은이에겐 가장 편하다네²²⁾

① 물고기 구경을 마치자 양산보가 자신만이 혼자 앉을 수 있는 바위가 있다고 말한다.

② 김윤제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런 곳이 있었느냐며 어서 가보자고 재촉한다.

③ 양산보가 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다.

④ 계곡 옆에 한 사람만 겨우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양산보가 편안하게 앉는다.

⑤ 김윤제는 소쇄폭포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자리라며 감탄한다.

⑥ 양산보는 폭소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잡념을 없앨 수 있고, 명상하기에 안성마춤이라고 한다.

⑦ 김인후가 명상은 고요한 곳에서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자 양산보는 고

22) 제19영 「榻巖靜坐」

요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매 한가지라고 대답한다.

⑧ 김인후는 평상바위에서 고요히 앉아있으니 문득 ‘榻巖靜坐’라는 구절이 떠올랐다고 말한다.

⑨ 양산보와 김윤제가 역시 김인후의 詩才를 못 당하겠다고 말한다.



5) 대숲 긴 섬돌을 거닐다 : 脩階散步

澹蕩出塵想
逍遙階上行
吟成閒箇意
吟了亦忘情

티끌 세상에서 나온 생각이 맑고도 넓어
섬돌 위를 걸림없이 자유롭게 거닌다네
시 읊어 한가로이 뜻 이루고
시 읊고 나면 사사로운 정 또한 잊는다네²³⁾

① 양산보가 탑암에서 올라와 이번에는 산책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소개한다.

② 待鳳臺 옆을 지나가는데 김윤제가 이름지은 내력을 묻는다.

③ 양산보가 봉황은 비록 전설상의 새이긴 하나, 봉황을 기다리는 마음이 곧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대답한다.

④ 양산보가 대봉대 옆 길게 이어진 담장을 가리키며 여기서 천천히 명상을 하며 걷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한다.

⑤ 김인후가 담장을 길게 쌓은 연유를 묻는다.

⑥ 양산보는 소쇄원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함이 첫째 이유이지만 그보다 바깥 세계의 번잡함을 멀리하고자 하는 뜻이 더 크다고 말한다.

⑦ 김윤제가 이렇게 멋진 산책길을 걷는데 시가 빠질 수 없다고 하면서 김인후에게 재촉한다.

23) 제23영 「脩階散步」

⑧ 김인후는 담장 밖은 대숲이고, 담장 안은 산책길이니 ‘脩階散步’라 이름 짓고 바로 즉석에서 시를 읊는다.

⑨ 양산보가 김인후의 시를 듣고 읊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것 같다고 감탄한다.



6) 애양단에서 겨울 한낮을 맞이하다 : 陽壇冬午

壇前溪尚凍
壇上雪全消
枕臂迎陽景
鷄聲到午橋

담장 앞 시냇물 아직 얼어 있고
담장 위에 내린 눈은 모두 녹았네
따뜻한 별 가까이 하여 팔베고 누우니
닭울음소리가 점심 때임을 알리는구려²⁴⁾

- ① 양산보의 안내를 받아 愛陽壇에 등을 기대고 해를 바라본다.
- ② 김윤제가 여기 별이 참 좋다고 하면서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며 옛이야기를 해준다.
- ③ ‘愛日’의 뜻을 설명하면서 하늘의 해가 늘 우리를 지켜주고 있듯이 부모님 또한 자식을 위해 항상 빛이 되어주는 존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면서 양산보가 지은 「孝賦」의 내용을 들려준다.
- ④ 양산보는 특히 겨울날에 이 담장에다가 등을 대고 해바라기하면 그렇게 편안할 수 없다고 자랑한다.
- ⑤ 김인후는 겨울에 이곳에서 다 같이 만나자고 하자 모두들 좌안대소한다.
- ⑥ 김윤제가 ‘愛陽壇’이라는 석판글씨에 눈길이 가자, 이 글씨 누가 썼는지 묻는다.

24) 제47영 「陽壇冬午」

⑦ 양산보가 귀엣말로 나 죽고 한참 뒤에 후배인 尤庵 宋時烈 (1607~1689)가 자신을 위해 썼다고 하자 김윤제와 김인후가 매우 놀라워하면서 웃는 표정을 짓는다.

⑧ 김윤제가 김인후에게 시 짓기를 재촉한다.

⑨ 애양단에서 겨울 한낮을 맞으면 좋다고 하셨으니 ‘陽壇冬午’라 하면 되겠다고 말한다.



7) 두 그루 소나무는 다리 너머 있고 : 斷橋雙松

泚泚循除水
橋邊樹二松
藍田猶有事
爭及此從容

물은 쿵쿵 소리내며 섬돌 따라 흐르고
다리 너머 소나무 마주 서 있네
남전엔 되려 일이 분주해
그 다툼 여기까지 끌어들이나²⁵⁾

① 양산보가 이제 개울을 건너자고 한다.

② 김윤제가 소쇄원에는 대나무만 많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기품있는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냐고 반문한다.

③ 양산보는 김윤제에게 소쇄원을 여러번 오셨는데도 여태까지 이 두 소나무를 보지 못했다고 하니 이 소나무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는가 하고 웃으면서 편잔을 준다.

④ 양산보가 외나무 다리를 가리키며 조심해서 건널 것을 당부한다.

⑤ 김인후가 소나무 두 그루를 심은 연유를 묻는다.

⑥ 양산보는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솔씨가 날아와서 저절로 자란 것이라고 말한다.

25) 제26영 「斷橋雙松」

- ⑦ 김윤제는 다리라도 튼튼하고 넓은 것으로 놓을 것이지 왜 외나무다리냐며 투덜댄다.
- ⑧ 양산보는 튼튼하게 다리 놓으면 다리밑 개울도 안보고 그냥 지나갈 터이니 개울밑이라도 잘 살펴보라고 해서 일부러 외나무 다리를 놓았다고 설명한다.
- ⑨ 김윤제는 겸연쩍어 하면서 애꿎게 김인후에게 농을 친다.
- ⑩ 김인후는 소나무와 다리가 운치있는 풍경이라 하면서 ‘斷橋雙松’이라고 이름짓고 시를 읊는다.



8) 시냇물이 담장 밑구멍을 뚫고 흐르다 : 垣竅透流

步步看波去
行吟思轉幽
眞源人未折
空見透墻流

한 걸음 한 걸음 물을 따라 오르는데
시 한 수 읊으니 생각은 도리어 그윽하다네
참된 근원 찾아 거슬러 가는 사람이 없으니
부질없이 물 흐르는 담장 밑을 본다네²⁶⁾

- ① 김윤제가 시냇물 위에 돌탑을 쌓아 담장을 두른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말한다.
- ② 양산보는 땅 위에 담장을 만들 수 있어도 흐르는 물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돌탑을 세워 담장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고 말한다.
- ③ 김인후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하면서 발상의 전환이 참 중요하다고 말한다. 안과 밖이 구별되면서 구별되지 않는 오묘함이 무척 신기하다고 하며 감탄한다.

26) 제14영 「垣竅透流」

④ 김윤제가 다시 담장을 보면서 ‘五曲門’이라는 석판에 대해 궁금해 한다.

⑤ 양산보는 저 글씨 또한 나보다 뒤의 후배 宋時烈이 쓴 것이라 하고, 이 시냇물에 굽이치는 물길에 다섯 개가 있어서 그리 지은 것이라고 소개한다.

⑥ 김윤제가 다섯 굽이 물길을 찾아본다.

⑦ 양산보는 흐르는 물길을 보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물의 근원을 아는 것이 학문의 근원을 탐구하는 것인데 이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태를 한탄한다.

⑧ 김인후가 담장 밑 돌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담장 밑으로 흐르는 물이라 하여 ‘垣竅透流’라 이름짓소 시를 읊는다.



9) 매대에 올라 달을 맞다 : 梅臺邀月

| | |
|-------|-------------------------------------|
| 林斷臺仍豁 | 숲 끊기고 매화언덕 확 트이니 |
| 偏宜月上時 | 달 떠오르는 때에 가장 알맞다네 |
| 最憐雲散盡 | 어여쁘다 구름은 모두 걷히고 |
| 寒夜映冰姿 | 추운 밤에 매화의 고고한 자태 비추네 ²⁷⁾ |

① 양산보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곳이라 하면서 매화나무동산을 소개한다.

② 김윤제는 자신 또한 매화를 가장 좋아한다면서 環碧堂 앞마당에 매화를 심었다고 자랑한다.

③ 양산보는 비록 지금은 여름이라 매화를 구경못하지만 초봄에 매화꽃 필 때 와보시면 그 향기가 매우 그윽하여 이곳이 마치 仙境에 와 있는 듯한

27) 제12영 「梅臺邀月」

착각이 든다고 했다.

④ 김인후는 宋나라 때 西湖主人으로 유명한 林逋가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았다던 ‘梅妻鶴子’의 고사를 말하면서 양산보가 바로 임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고 웃으며 말한다.

⑤ 양산보는 매화를 감상하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곳 매화동산에서 달맞이하기도 아주 좋다고 자랑한다.

⑥ 김윤제는 밤중에도 꽃구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에 슬깃해한다.

⑦ 김인후는 내년에 매화꽃 필 때 이왕이면 보름날에 맞춰서 꼭 와야겠다고 다짐한다.

⑧ 김윤제도 자신도 그때 같이 함께 하겠다고 답하자, 양산보는 꼭 그렇게 하시라고 재촉한다.

⑨ 김인후가 매화동산을 거닐면서 매화동산에서 달을 맞이하신다 하셨으니 ‘梅臺邀月’이라고 이름짓고 시를 읊는다.



10) 회화나무 옆 기이하게 생긴 바위에 기대어 졸다 : 倚睡槐石

自掃槐邊石
無人獨坐時
睡來驚起立
恐被蟻王知

회나무 둘레의 돌들을 손수 쓸고서
인적없이 홀로 앉아 있다네
졸다가 갑작스레 놀래 깨니
왕개미가 행여 알세라 두렵다네²⁸⁾

① 양산보가 매화동산에서 내려와 담장가로 올라가서 회화나무 곁 요상하게 생긴 바위에 앉는다.

② 김윤제가 이 나무는 회화나무가 아닌가 하고 묻는다.

28) 제24영 「倚睡槐石」

- ③ 양산보는 자신이 여기서 가끔 낮잠을 잔다고 말한다.
- ④ 김운제가 다른 곳 놔두고 왜 여기서 낮잠을 청하냐고 묻는다.
- ⑤ 회화나무가 무병장수를 뜻하기도 하고 또 회화나무 꽃을 말려서 차로 마시면 희던 머리가 검어진다고 소개한다.
- ⑥ 김인후가 회화나무를 보더니 淳于棼의 南柯一夢 고사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 ⑦ 양산보는 김인후의 말을 듣고 자신이 여기서 낮잠 자다가 가끔 그 꿈을 꾸다고 하면서 숙세를 벗어나고자 이곳에서 숨어 지내는데도, 아직도 벼슬살이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허허로운 웃음을 짓는다.
- ⑧ 김인후가 회화나무 옆 기이한 바위에 앉아 조신다 하셨으니 ‘倚睡槐石’이라 이름짓자 양산보와 김운제가 감탄한다.



11) 넓다란 바위에 누워 달을 보다 : 廣石臥月

| | |
|-------|---------------------------------|
| 露臥青天月 | 밝은 밤하늘 아래 이슬 맞고 누우니 |
| 端將石作筵 | 넓은 바위로 돛자리를 짓는다네 |
| 長林散淸影 | 대숲에 긴 그림자는 운치 있게 흩어져 |
| 深夜未能眠 | 깊은 밤이어도 잠 못 이룬다네 ²⁹⁾ |

- ① 양산보가 여기까지 구경하느라 고생 많다고 하면서 이제는 개울가로 내려가자고 청한다.
- ② 김운제가 반색하며 안그래도 개울가에 가서 바람이라고 췌고 싶다고 했다.
- ③ 김운제가 양산보에게 소쇄원을 조영하면서 바위 하나도 예사롭지 않다

29) 제13영 「廣石臥月」

고 말한다.

④ 김인후가 넓직한 바위를 보더니 唐나라 때 李德裕 平泉莊을 만들면서 술을 깨는 바위라고 했던 ‘醒酒石’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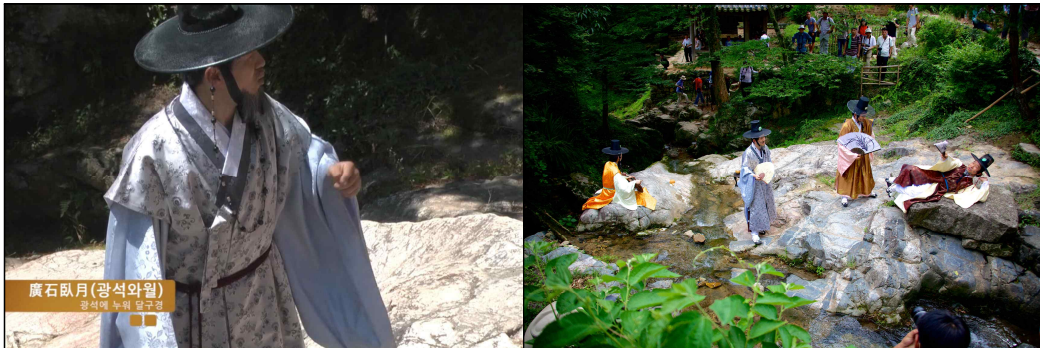
⑤ 양산보는 바위가 평평해서 술을 마시기도 좋지만 자신은 오히려 누워서 달을 보는 재미가 더하다고 말한다.

⑥ 김윤제가 아까 매화동산에서 달을 보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⑦ 양산보는 매화동산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그냥 누워서 달을 바라보면 한없이 그윽하다고 말한다.

⑧ 양산보가 바위 위에 누워 팔을 괴고 눕는 모습을 보여준다.

⑨ 김인후는 널따란 바위에 누워 밤하늘에 달을 바라본다고 하셨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기는 ‘廣石臥月’이라고 말한다.



12) 평상바위에서 바둑을 두다 : 床巖對棋

石岸稍寬平
 竹林居一半
 賓來一局碁
 亂雹空中散

돌기슭 조금은 넓고 평평하여
 대숲에서 한 나절이나 지낸다네
 손님이 와서 바둑 한 판 두는데
 우레소리 어지러이 공중에서 흩날린다네³⁰⁾

① 양산보가 소쇄원의 숨은 비경을 대부분 구경한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니 이제부터 놀이도 하고 흥도 즐겨보자고 권하면서 개울쪽으로 안내한다.

② 양산보는 김윤제에게 광석바위 아래에 평평한 곳에서 장기를 두지 않겠는가 하고 묻는다.

30) 제22영 「床巖對棋」

- ③ 김윤제는 장기두기에 안성마춤이라면서 지는 사람이 술을 내는 것이 어떤가 하고 묻는다.
- ④ 양산보는 흔쾌히 응하면서 봐주기 없다면서 농을 친다.
- ⑤ 김인후는 두 사람이 평상 바위 위에서 장기를 두는 모습을 보니 저절로 ‘床巖對棋’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더구나 장기 두는 소리가 마치 우레처럼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고 한다.
- ⑥ 양산보는 은사들의 생활을 그린 그림을 보면 장기가 빠지지 않으니 우리들이 바로 은사가 아니겠는가 하고 호탕한 웃음을 짓는다.
- ⑦ 양산보가 장기에서 지자, 약속한 대로 술상을 준비하겠다고 한다.



13) 돌며 흐르는 물길에 술잔을 띄워 보내도다 : 湫流傳盃

| | |
|-------|------------------------------------|
| 列坐石渦邊 | 물살 치는 돌 웅덩이에 둘러앉아 |
| 盤蔬隨意足 | 소반의 가득 갖가지 나물이 넉넉하다네 |
| 洄波自去來 | 빙빙 도는 물길에 절로 오고가니 |
| 盞罍閒相屬 | 띄운 술잔이 한가로이 서로 이어지네 ³¹⁾ |

- ① 양산보가 굽이치는 계곡에 자리 잡고 시종불러 술상을 가져오라고 한다.
- ② 김윤제가 이곳이 좀 불편한 자리가 아니냐고 묻는다.
- ③ 양산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왜 자신이 여기에 자리잡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④ 이윽고 시종이 술상을 내오자, 양산보는 술잔을 따라 계곡물에 띄운다.
- ⑤ 김윤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말로만 듣던 ‘流觴曲水’가 아닌가 하며

31) 제21영 「湫流傳盃」

감탄한다.

⑥ 양산보는 이제야 이곳에 자리잡은 연유를 알겠는가 하며 호탕하게 웃는다.

⑦ 김윤제는 신라 때 경주 砲石亭에도 이와 유사한 술잔놀이가 있는데, 이곳은 천연 계곡바위가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포석정보다 훨씬 더 운치있다고 평가한다.

⑧ 김인후가 굽이굽이 휘어도는 물 위에 술잔도 빙빙돈다고 하자. 즉석에서 ‘湫流傳盃’라 이름지으니 양산보와 김윤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절묘한 이름이라고 감탄한다.



14) 조담에서 미역을 감다 : 槽潭放浴

潭水深見底
浴罷碧粼粼
不信人間世
炎程脚沒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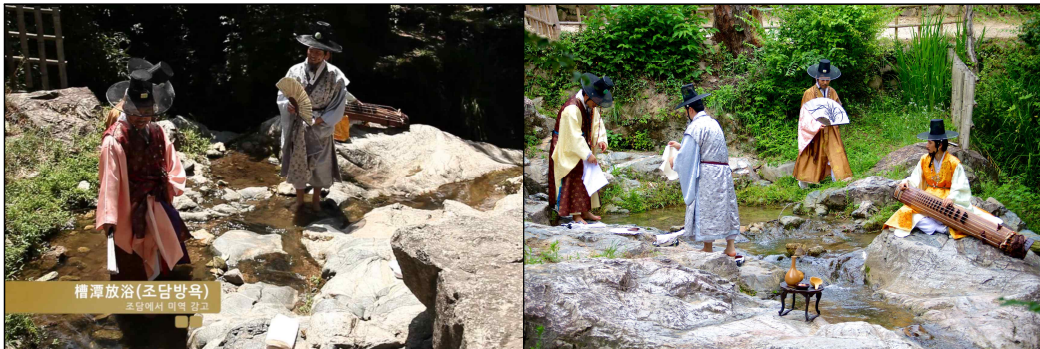
못물 맑아 깊어도 바닥을 볼 수 있으니
목욕을 마치고도 맑기는 그대로일세
인간 세상을 더는 믿을 수 없어
더운 여름날 내딛 발엔 티끌도 없다네³²⁾

- ① 양산보가 계곡물에 발을 담가 시원함을 느끼는濯足을 제안한다.
- ② 김윤제는 마침 더위 탓에 힘들었다면서 흔쾌히 응한다.
- ③ 세 사람 모두 신을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근다.
- ④ 양산보가 여기를 가리키며 흐르는 물이 이곳에 모여있는 모습이 마소의 먹이를 담는 구유처럼 보여서 槽潭이라고 이름지었다고 말한다.
- ⑤ 김인후가 양산보의 말을 이어 구유 속에서 먹을 감고 있는 것이니 ‘槽潭放浴’이라고 말한다.

32) 제25영 「槽潭放浴」

⑥ 양산보가 시원하게 발도 담그고 했으니 이제는 거문고 연주를 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⑦ 김윤제가 이 좋은 구경에 어찌 음악이 빠질 수 있겠는가 하고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거든다.



15) 맑은 물가에서 거문고 타다 : 玉湫橫琴

瑤琴不易彈
舉世無鍾子
一曲響泓澄
相知心與耳

거문고를 쉽게 타지 않는 건
세상 두루 찾아보아도 종자기가 없어서라
맑고 깊은 물에 한 곡조 울리고 나면
마음과 귀만은 서로 안다네³³⁾

① 양산보가 오늘을 위해서 거문고 명인을 초대했다고 하면서 소개한다.
② 이윽고 거문고 연주가 시작되자 좌중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감상한다.
③ 김윤제가 앉은 자리에서 발림동작을 보여주자 양산보가 참았던 웃음을 터뜨린다.

④ 김인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말 않는다.

⑤ 거문고 연주가 끝나자 세 사람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박수로 화답한다.

⑥ 김인후가 거문고 소리와 계곡물 소리가 참 절묘해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다고 말한다.

⑦ 양산보는 이 계곡물 소리가 마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흡사해서 자신이 玉湫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⑧ 김인후는 옥추에서 거문고 연주를 들었으니 ‘玉湫橫琴’이라고 즉석에

33) 제20영 「玉湫橫琴」

서 이롭짓고, 마침 시상이 떠올랐는데 지필묵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한다.

⑨ 양산보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시종에게 지필묵을 내오라고 명한다.

⑩ 김인후는 거문고하면 伯牙와 鍾子期の 고사가 있지 않는가 하면서 종이를 펼쳐 붓을 들고 시를 지어 양산보에게 바친다. 양산보는 시를 지은 종이를 주위에 펼쳐보이며 자신에게도 이와 같은 知音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16) 시냇가 글방에서 놀다 : 枕溪文房

窓明籤軸淨
水石映圖書
精思隨偃仰
妙契入鳶魚

창 밝고 두루마리 깨끗하여
그림과 글씨는 수석에 비치도다
일상생활 따라 밝은 마음 다스리니
술개날고 물고기 뛰어 절묘한 조화로다³⁴⁾

① 거문고 연주를 끝내고 양산보는 저 아래 광풍각으로 가자고 권한다.

② 김윤제가 광풍각 또한 제월당과 마찬가지로 黃庭堅이 周敦頤를 사모해서 지었다고 하는 가슴 속이 시원함은 맑은 바람이나 비갠 뒤에 떠오르는 달과 같았던 ‘光風霽月’이 아닌가 하고 묻는다.

③ 양산보는 자신이 닮고 인물이 바로 周敦頤이라고 화답한다.

④ 김인후는 제월당은 이름으로 보면 陰이고, 광풍각은 陽인데 풍경은 반대로 제월당이 陽이고 광풍각이 陰이어서 참 묘하고 말한다.

⑤ 양산보는 바로 이것이 음양의 조화가 아니겠는가 하고 웃는다. 주로 여기서 책을 많이 본다고 말한다.

⑥ 김인후는 광풍각은 공부하는 방이니 文房이고, 옛사람들이 계곡 옆에

34) 제2영 「枕溪文房」

서 누워서 지냈다 하여 枕溪라 하였으니 이곳은 바로 ‘枕溪文房’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한다.

⑦ 양산보는 어찌 김인후는 보는 즉시 시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재능이 참으로 놀랍다고 감탄한다.

⑧ 김윤제가 이제 날도 저무르려고 하니 이만 일어서야겠다고 말한다.



17) 버드나무 물가에서 손님을 배웅하다 : 柳汀迎客

有客來敲竹
數聲驚晝眠
扶冠謝不及
繫馬立汀邊

나그네 찾아와 문 두드리니
몇 번 듣고 놀라 잠을 깼네
벼슬 그만두어 개의치 않았는데
말 매놓고 버드나무 물가에 서 있네³⁵⁾

① 양산보가 오늘 모처럼 만나서 기분 좋은데, 벌써 헤어지려고 하니 너무도 아쉽다고 말한다.

② 김윤제는 오늘만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다음에 또 기약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양산보의 아쉬움을 달래준다.

③ 김인후는 겨울에는 담장에 기대에 해바라기 해야 하고, 봄에는 달뜨는 밤에 매화도 봐야 하니 또 오겠노라고 약속한다.

④ 양산보가 여기 버드나무를 가리키며 자신은 여기까지만 배웅하겠노라고 말한다.

⑤ 김윤제가 그러한 까닭을 묻는다.

⑥ 양산보는 버드나무는 이별과 만남을 뜻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35) 제39영 「柳汀迎客」

- ⑦ 김윤제는 평양의 대동강변에 버드나무들이 온전치 않은 까닭이 바로 그 때문임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호탕하게 웃는다.
- ⑧ 김인후는 다음에는 버드나무가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즉석에서 ‘柳汀迎客’이라 이름 짓는다.
- ⑨ 양산보는 김인후에게 떠나는 순간까지도 시를 잃지 않는다고 말한다.
- ⑩ 양산보는 개울 다리를 건너는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든다.



이상으로 행위요소로 가능한 「소쇄원48영」 중 16영을 도입부분에서 만남의 장면과 함께 17장면으로 구성하여 재연하였다. 한 제영에 해당하는 장면이 끝나면 연속 동작으로 다음 제영장소로 이동하는 등 마치 전체가 한 장면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인상이 들도록 하였다. 모두 16영을 마치자, 실제 재연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렸으며, 일부 관광객들도 함께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현장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수준은 소쇄원이 전통문화콘텐츠로써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 소쇄원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

소쇄원은 조선 전기 때 園林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되는 樓亭 중의 하나이다. 적정 인원수를 넘는 관광객들로 인해 다소 몸살을 앓고 있다. 담양군청에서 관리를 맡은 이후로는 사정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

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소쇄원의 공간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통시대의 문화유산을 오늘날 효율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적인 접근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가 재연의 중요 자료로 삼은 김인후의 「소쇄원48영」을 인문학적 관점에만 머무른다면 재연행사조차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과거 역사의 문화콘텐츠가 영화, 드라마 등의 형태로 인기리에 무대에 올려 지거나 방영되고 있다. 이는 소재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년 전에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인기가 높았던 『쾌걸춘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춘향전」의 원형콘텐츠는 변하지 않는다. 답답한 한복 대신 배꼽티에 청바지를 입은 엽기발랄한 춘향으로 탈바꿈하여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장금』 또한 몇줄에 지나지 않는 역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상상력을 가미하여 궁중음식을 둘러싼 인물들의 갈등전개양상으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였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흔히 ‘한국적 물결’이라 일컫는 ‘韓流’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형문화유산으로서 樓亭도 이와 같은 선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누정은 전국적인 분포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자연과 합일을 지향했던 호남의 지식인들은 그 공간마저 사유화하지 않았다. 또한 이곳은 살림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온돌을 위한 구들만이 전부였다.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음을 배려한 것이었다. 이는 호남의 넉넉한 인심을 엿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 시와 음악을 노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 소쇄원이 있는 전남 담양군만해도 20여 곳이 넘는다. 영남의 누정과 비교한다면 영남은 누정건축과 주변 풍경이 뛰어난 반면에 호남은 시가문학과 같이 연계하여 발달했다는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소쇄원 뿐만 아니라 호남의 대부분의 누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고가 소쇄원의 재연에 초점을 둘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소쇄원48영」이라는 작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누정과 함께 시가문학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정의 문화콘텐츠로써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문화콘텐츠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떤 무엇을 새롭게 기획할 때 바탕이 되는 ‘창의적인 생각’과 함께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는 ‘비즈니스 마인드’이다. 양자를 조화롭게 이뤄 융합할 때 문화적인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비즈니스 마인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는 적당치 않으며, 자치단체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향후 문화관광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필자가 향후에 소쇄원의 건축물인 霽月堂과 光風閣을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콘텐츠 개발과 운영방향에 대한 것이다.

【표】 소쇄원 프로그램 운영방안

| 구분 |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비고 |
|----------------------|----------------|--|--------------------------|
| 체험 행사 | 의례 교육 | · 茶道과 禮節 교육 | 창평향교와 연계 |
| | 전통 교육 | · 기초한문과 서예 학습 · 서당식 한문경전 학습 · 누정문화 체험(제월당, 광풍각 개방) · 한시와 현대시짓기 등 문예 창작 교육 · 소쇄원의 다양한 식생 체험학습 |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와 연계 |
| 문화 유적 답사 행사 | 누정 전통 문화 | · 소쇄원 인근의 담양, 화순, 곡성 등의 누정답사 (면양정, 독수정, 취가정, 풍암정사, 환벽당, 식영정, 명옥헌, 물염정, 임대정 등) · 무등산 시가문화권 조성 | 담양군청과 연계 |
| 문화 예술 | 창작 예술 | · 소쇄원48영 재연 행사. 계절별 특성화. · 소쇄원 스토리텔링 개발 · 소쇄원의 동영상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 한국가사문 학관과 연계 |

소쇄원을 단순한 누정이 아닌 전통문화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쇄원을 중심으로 茶道, 禮節, 교육, 창작, 문화답사 등을 활성화시킨다면 소쇄원의 외연이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킹엄 궁전의 근위병 교대식은 영국에 대한 대표적인 문화적 이미지이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다. 바로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다. 그러나 질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 어딘가 어색하고 세련된 맛이 없어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

관광의 의미가 『周易』의 ‘觀國之光’³⁶⁾에서 유래한 것처럼 그 ‘나라의 빛남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가 얼마나 맑고 밝은가를 본다는 뜻이며, 이는 그 나라의 문화수준을 재는 가늠자와 같다고 하겠다. 우리의 문물과 전통문화 그리고 자연환경을 외면적으로만 살펴보는 것은 관광의 주목적이 아닌 것처럼 문화경험을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정신적 감화와 교감이 있을 때 문화관광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소쇄원48영 재연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에 머무르고 마는 경유형 관광형태를 지양하고, 문화행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를 앞으로 정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정건축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때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누정의 본래 의미가 ‘쉽’에 있는 것처럼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누정에 자연을 감상하고 자신의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지닐 수 있다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소쇄원48영」 재연 행사”와 관련하여 문화콘텐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쇄원은 전남을 대표하는 누정으로 이미 유명

36) 『周易』, 上經, ‘坤下·巽上’, ‘觀’

관광지가 되었다. 단순히 전통조경공간으로만 인식하던 것이 아쉬운 차에 광주문화재단의 “소쇄원48영 재연 행사” 시도는 비단 소쇄원 뿐만 아니라 누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전환시키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형문화유산을 단순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문화콘텐츠로써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광주문화재단의 새로운 시도에 맞추어 “「소쇄원48영」 재연 행사”의 의미와 진행 그리고 문화콘텐츠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했다. 그 결과 「소쇄원48영」 가운데 재연 요소로 적합한 16영을 선별하였다. 梁山甫, 金允梯, 金麟厚 등 세 사람의 등장인물과 첫 만남의 장면까지 포함하여 17장면을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재연하였다. 등장인물의 대사는 각 제영에 해당하는 작품의 내용을 소재로 재구성하였으며, 대본에 크게 의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로 진행하였다. 재연 과정은 각 장면이 끝남과 동시에 연속된 형태로 한 시간 반 가량정도 진행하였다. 특히 진행과정에서 일체 관람객을 통제하지 않는 등 불편을 최소화 했다는 점은 자칫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관계자들이 적절히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문화콘텐츠 부분이다. 최근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문화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가 본고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남의 대표적인 누정 소쇄원이다. 사람, 조경, 문학, 예술 등등 여러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소쇄원이 지닌 안팎의 다양한 요소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면 문화관광 차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민의 인식제고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학제간의 연구성과를 축적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소쇄원사실』

『하서전집』

『송강집』

『주역』

2. 논문

김덕진 「『소쇄원사실』 발간과 그 의의」, 『역사학연구』 35, 호남사학회, 2009.

박명희 「河西 金麟厚의 瀟灑園48詠 考」, 『우리말글』 25, 2002.

김영모 「시짓기와 원림 조영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1, 한국전통조경학회, 2003.

김용수·김재호, 「소쇄원에서 보는 命名과 詩吟의 계획론적 의미」, 『경북 논문집』 49, 경북대학교, 1990.

소현수 「借景을 통해 본 소쇄원 원림의 구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한국전통조경학회, 2011.

임준성, 「〈성산계류탁열도〉 재연 분석과 문화콘텐츠로써 가능성」, 『남도민속문화』 25, 남도민속학회, 2012.

정광휘 「소쇄원 초기 시단의 한시 일고」, 『동양한문학연구』 33, 동양한문학회, 2011.

정동오, 「소쇄원의 조경식물」, 『호남문화연구』 9,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77.

조태성, 「소쇄원 조영에 투영된 감정 구조와 공간의 미학」, 『호남문화연구』 44,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원, 2009.

권수용, 『소쇄원의 역사와 인문 활동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미정, 『소쇄원을 통해 본 전통 원림의 차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 저서

김덕진, 『소쇄원사람들1』, 다할미디어, 2007.

김덕진, 『소쇄원사람들2』, 선인, 2011.

양재영 편, 『소쇄원시선』, 광명문화사, 1995.

이동호, 『소쇄원의 숨은 그림 찾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0.

전경원, 『瀟湘八景,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 출판부, 2007.

천득엽, 『한국의 명원, 소쇄원』, 발언, 1999.

丁益燮, 『改稿 湖南歌壇』, 민문고, 1989.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4. 사진

(재)광주문화재단 제공.

투고일 : 2013년 1월 15일, 심사 : 2013년 1월 16일~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3일

<Abstract>

Reenactment of the 「Soswaewon48poems(瀟灑園48詠)」
element analysis and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

Lim, Jun-sung

Paper and Utilization of cultural content that will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analysis of the elements of the reenactment of Chonnam representative pavilion Soswaewon song "「Soswaewon 48poems」 reenactment event". "「Soswaewon 48poems」 replay events" to see a glimpse into the daily lifestyle of the 16th century, the gentry, Gwangju Cultural Foundation in the planning and production.

「Soswaewon 48poems」 conduct elements as replays on the appropriate 16poetry to screening were, Yang Sanbo(梁山甫), Kim Yunje(金允悌), Kim Inhoo(金麟厚) such as an older person's emergence figures and the first meeting of the scene until, including the 17 scenes with all the configuration by sequentially replays were. And scenic Soswaewon of scenery work poetry of each scene, appealed in the center of the dialog each scene, subsequently leading to the configuration. "「Soswaewon 48poems」 reenactments of events" can be said that the transition and a new awareness of the traditional culture have demonstrated the possibility of an extension of traditional cultural content events. "「Soswaewon 48poems」 reenactments of events" in order to regularize the sake of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tourism industry, and to emphasize the role of the traditional humanities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new approach to cultural content there is a need to illuminate.

Chonnam(全南) as well as Soswaewon(瀟灑園), Myeonangjeong(俛仰亭), including Sikyoungjeong(息影亭), Hwanbyeokdang(環碧堂) culture of Korea pavilion occupies the center that is not an exaggeration. Cultural content to take advantage of a variety of factor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people of each pavilion, landscape architecture, literature, art, etc., if you will be able to discover a new dimension in the value of cultural tourism. To do this, governments actively support its residents' awarenes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will need to continue.

Key words : Soswaewon 48poems(瀟灑園48詠), Kim Inhoo(金麟厚), Yang Sanbo(梁山甫), reenactment, cultural content, cultural tourism

